

## 고위공무원단에게 보내는 서신

고위공무원단 여러분께.

고위공무원단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계급이 없는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연공서열주의와 폐쇄적 계급제를 벗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중심의 공직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료 간, 그리고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직을 받게 됩니다. 능력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더 이상 시험 기수나 연령, 승진 순서 등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 공무원과도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현 부처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정부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교류가 활성화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해질 때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정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여러분,

오랜 기간 우리 공직사회를 지배해 온 관행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계급제로 흐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모직위 등을 통해 새로운 부처, 새로운 업무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적재적소에서 보람 있게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 반 가까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인사혁신도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성공시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려가 있다면 떨쳐 버립시다. 각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거듭 임용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